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818호 1판 (음력 7월 7일)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광프리카’ 원인은 아파트와 자동차

〈광주 + 아프리카〉

광역시 중 폭염 가장 취약
지난 8년간 자동차수 26%
아파트 세대수 18% 늘어
도로 열기·녹지 감소 심각

광주가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지난 10년간 급증한 아파트, 자동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열기와 오염물질을 내뿜는 인공구조물이 급증하면서 다른 도시보다 폭염에 노출되는 정도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옥상 녹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는 지난 2010년부터 8년간 자동차수가 26% 이상, 같은 기간 아파트 세대수는 18% 이상 각각 급증했다.

16일 광주시, 환경부 등에 따르면 광주는 5개 자치구 가운데 무등산이 있는 동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의 폭염취약지수가 0.465를 넘어 최고등급을 보였다. 동구가 0.41로 가장 낮았고, 남구 0.49, 서구 0.51, 광산구 0.55, 북구 0.58 등의 순으로 높았다. 폭염취약지수는 기후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등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발생 및 대응 취약성 정도를 기초지자체별로 상대적으로 평가해 지수화한 것이다.

광역시 가운데 자치구가 포함된 것은 부산과 광주 뿐이었다. 부산은 16개 자치구·군 가운데 부산 진구(0.47), 사하구(0.48), 해운대구(0.50) 등 3곳이 폭염에 취약한 곳으로 분류됐다. 광주는 5개 자치구 중 4개로, 대부분의 행정구역이 폭염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폭염 발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후노출지수가 0.44로, 전북의 주요 시·군(0.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대구 0.22, 서울·대전 0.25, 인천 0.22, 부산·울산 0.37 등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폭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전남과 전북은 무더위 쉼터 등 피난시설이 미흡하고, 광주는 폭염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전문가, 시민단체 등은 이처럼 광주가 폭염에 취약한 원인을 자동차와 아파트의 급증에서 찾고 있다. 자동차의 열기,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의 복사열,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녹지 및 저층주거지 감소, 도심 바람길 상실 등이 광주에서만 유독 심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지난 2010년 51만8477대에서 2018년 65만6724대로 13만8247대(26.66%)가 증가했다. 사용중·시공중 아파트는 2018년 6월 현재 1123개 단지 42만6507세대로, 2010년 6월(962개 단지 36만1383세대)에 비해 161개 단지 6만5124세대(18.02%)가 늘었다.

이봉수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이사는 “지금까지 광주에서의 도시개발이 도심은 물론 외곽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고층아파트를 짓는 방향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반사되는 복사열이 도시를 더 뜨겁게 만드는 것”이라며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비한 도시 전반의 공간 구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 15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반둥의 시 잘락 하루팟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조별리그 E조 1차전 한국과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붉은악마 응원단이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고 있다. 황의조의 해트트릭과 1골 1도움을 기록한 나상호(광주)의 활약에 힘입어 6-0 대승을 거둔 한국은 오늘 오후 9시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내일 개막

한국 6회 연속 종합 2위 목표

월드컵에 이어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가 뜨거운 여름을 장식한다. 〈관련기사 20면〉

4년을 기다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18일 오후 9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로라 붕 카르노 주 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과 함께 16일간의 열전을 시작한다.

‘아시아의 에너지’(Energy of Asia)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대회는 내달 2일까지 계속되며, 45개국의 1만1300명의 선수단이 40개 종목에서 465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친다.

한국은 1998년 방콕 대회 이후 6회 연속 종합 2위를 목표로 장도에 올랐다. 39개 종목에 파견된 1044명의 선수단은 금메달 65개, 은메달 71개, 동메달 72개 등 총 208개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남북 단일팀 38명도 ‘화합과 열전의 무대’를 연출한다. 2018 평창동계 올림픽에서 국제 종합대회 두 번째로 ‘코리아(COR)’를 꾸렸던 남북한은 여자농구, 카누 드래곤보트, 조정 3개 종목에서 아시안게임 처음으로 단일팀을 꾸렸다.

지역 출신 선수들의 금빛 도전에도 눈길이 쏠린다.

‘한국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김국영을 필두로 멀리뛰기의 김덕현, 400m계주의 김민균, 여자 100m허들 정혜림, 여자 세단뛰기의 배찬미 등 광주시청 육상팀 소속 선수 5명이 한국의 메달 레이스에 힘을 보탠다. 대표팀 선발전이라는 바늘 구멍을 뚫은 이은경(순천시청), 지난해 유스복싱 선수권에서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우승을 거둔 화순 출신의 임애지(한국체대), 여자 우슈 국내 최강자인 서희주(순천우슈협회)의 활약도 기대된다.

프로 선수들도 축제에 함께 한다. KIA 양현종, 임기영, 안치홍과 진흥고 출신의 ‘안방마님’ 양의지(두산) 등이 야구 3연패를 벼르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출발부터 ‘삐걱’

위원회 구성 놓고 광주시민권익위-시민단체 충돌

도시철도 2호선 공론 방식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놓고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충돌 양상까지 보이는 등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시민권익위는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에서 공론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숙의’를 공론 방식으로 전제하고 공론화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까지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 주재로 3차례에 걸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 구성과 관련한 준비 회의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최소 7명의 중립적인 인사와 광주시,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 각각 2명씩 최대 11명으로 공론화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권익위는 이번 주말까지 시민모임의 답변을 기다린 뒤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이에 시민모임 측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공론화위 구성안 취소, 공론화 과정에 표본 시민의 직접 참여와 학습·토론 기회 보장, 이 시장의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준비를 위한 직접 대화 등을 요구했다.

최영태 위원장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대표성 등을 담보할 수 없는 숙의 방식을 전제로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것은 이후 그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제1회

14세&세계&경계

두 발이 자유로워 친구들과 어디 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보호자 없이 광주 밖을 벗어나 나가본 적이 없다. 유스퀘어란 곳에 버스 터미널도 있어서 가끔 가서 버스를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걱정도 있지만 광주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도 크다.

박세은 / 장래의 꿈 : 옷에 관련되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

지금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교회에 가면 욕도 안 하고 행동을 예쁘게 하게 되는데 학교에 오거나 친구들과 만나면 욕도 많이 하게 되고 행동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그렇다고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나쁜 애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교회(기독교)와 학교(세상)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 것 같다.

범윤서 / 좋아하는 곳 : 친한 사람과 함께 있는 곳

광주 시내 중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한 후 중2학생들(만14세)에게 주변에 있는 ‘경계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고 작은 그들의 세계를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시타미치 모토유키(작가) / 2018광주비엔날레

*이 프로젝트는 광주일보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함께합니다.

※ 광주일보사는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일본의 시타미치 모토유키가 광주 지역 14세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작품 ‘14세&세계&경계’를 매주 금요일 13주간 연재합니다. 작품이 담긴 신문 지면은 9월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하는 2018 광주비엔날레에 전시됩니다. ▶관련기사 16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